

## 5. 성령론

### 1) 삼위일체의 신데렐라, 성령

맥그래스(McGrath)는 성령을 “삼위일체의 신데렐라”라고 표현하였다.<sup>1)</sup> 신학자들의 논쟁의 파티에 ‘성부’와 ‘성자’가 항상 주요 등장인물로 참석하는 반면, ‘성령’은 마치 신데렐라처럼 집에 남겨져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성령의 하나님 됨에 대한 논의는 교리사의 후반부에 와서야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사실 초기 신학자들에게 시급했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동시에 신이라는 기독론적 논쟁이지 성령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맥그래스는 이러한 삼위일체 위격들에 대한 논쟁의 교리사적 단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한다.

“Stage 1: the recognition of the full divinity of Jesus Christ. Stage 2: the recognition of the full divinity of the Spirit. Stage 3: the definitive formulation of the doctrine of the Trinity, embedding and clarifying these central insights, and determining their mutual relationship.”<sup>2)</sup>

### 2) 성서에 드러나는 성령의 모델들

히브리어 ‘루아흐’(ruach), 그리고 요한 4:24의 “하나님은 영(pneuma; spirit)이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맥그래스는 3가지 주요한 생각을 제시한다.<sup>3)</sup>

#### (1) 바람(wind)으로서의 영

구약성서는 바람 혹은 태풍과 같은 자연의 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웠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바람의 능력을 종종 비교하여 말한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21에서 하나님의 영은 홍해를 가르는 세찬 바람에 비교된다.

우리는 서쪽으로 지중해와 동쪽으로 사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리를 생각해야 한다. 동쪽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파괴의 바람이다. 모래를 가져오는 동풍은 식물을 말라죽게 하고 땅을 황폐시킨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듭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이사야 40:7)에서처럼, 동쪽의 바람은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자연의 힘이다.

반면 서쪽에서 부는 서풍은 건조하고 무더운 땅에 겨울에는 식물을 위한 비를,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휴식을 가져오는 바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호세아 6:3)

#### (2) 숨(breath)으로서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숨 혹은 호흡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1)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1997), 279.

2)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1997), 284.

3)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1997), 279-281.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세기 2:7)에서처럼, 성령은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이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에스겔 37:5)에서처럼, 이미 죽은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숨은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숨 혹은 영은 창조와 생명의 영으로 이해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세기 1:2).

### (3) 은사(charisma)로서의 영

“카리스마”라는 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 받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지혜의 선물, 지도력이나 군사적 책략의 뛄어남, 그리고 예언의 능력 등이 이러한 영의 은사의 결과라고 이해된다.

## 3) 공의회에 드러나는 성령의 신학

(1) 니케아 신조(325년):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sup>4)</sup>

(2)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381):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는 성부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성부 그리고 성자와 함께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sup>5)</sup>

(3) 톨레도 공의회(447): “… 그는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filioque*) 나옵니다. …”<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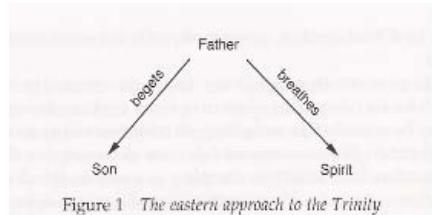


Figure 1 The eastern approach to the Tri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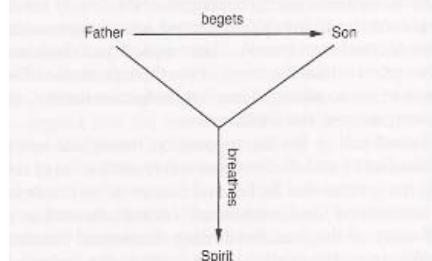


Figure 2 The western approach to the Trinity

(4) 사도신경(750년 공인된 본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sup>7)</sup>

4) 손호현, 『사도신경: 믿음의 알짬』(서울: 동연, 2014), 127.

5) 손호현, 『사도신경: 믿음의 알짬』(서울: 동연, 2014), 128-129.

6) 손호현, 『사도신경: 믿음의 알짬』(서울: 동연, 2014), 129.

7) 손호현, 『사도신경: 믿음의 알짬』(서울: 동연, 2014), 15, 126.

#### 4) 초대 신학자들의 성령의 신학

##### (1)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6-373)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은 성령의 신으로서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보여준다고 아타나시우스는 *Letter to Serapion*에서 주장한다.

##### (2)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354-430):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결합”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중에 동서방 교회의 ‘필리오케’ 논쟁의 핵심 이유가 되는 ‘그리고 아들로부터’의 논리를 정초한 인물이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은 “-----”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작성한 찬양시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Help us, Holy Spirit, **the bond of Father and Son (*patries et filii copula*)**,  
When you rest, you are the Father; when you proceed, the Son:  
In binding all in one, you are the Holy Spirit.”<sup>8)</sup>

성부가 성부인 것은 오직 성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성자가 성자인 것은 오직 성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이 성령인 것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 묶는 역할 곧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상호적 사랑”이기 때문이다.<sup>9)</sup> 나아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는 성령은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상호적 사랑으로 활동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보았다.

#### 5) 삼위일체론 교리의 역사적 전개

##### (1) 성서의 암시적 삼위일체 표현들

① 로마서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② 마태복음 28:19: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2) 용어

###### ① *Trinitas, Persona, Substantia*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 160-220)는 삼위일체의 핵심적 세 개념 “삼위일체”(*trinitas*), “위체”(*persona*), “본질”(*substantia*)를 모두 정립한 신학자이다. 라틴어 “*Trinitas*”는 테르툴리

8)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1997), 284.

9)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1997), 285.

아누스가 최초로 사용한 신조어로서 서방교회에서 독특한 기독교 신관을 가리키는 규범적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어졌다.

“As if in this way also one were not All, in that All are of One, by unity (that is) of **substance**; while the mystery of the dispensation is still guarded, which distributes the Unity into a **Trinity**, placing in their order the three **Persons**—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three, however, not in condition, but in degree; not in substance, but in form; not in power, but in aspect; yet of one substance, and of one condition, and of one power, inasmuch as He is one God, from whom these degrees and forms and aspects are reckoned, under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How they are susceptible of number without division, will be shown as our treatise proceeds.” (Tertullian, *Adversus Praxeam*, 2장)

이 작품에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one substance in three persons”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_\_\_\_\_ 등의 메타포를 사용한다.

그러나 문제는 “위체”라고 번역된 라틴어 “*persona*”였다. 이것은 그리스어 “*hypostasis*”를 번역한 것으로, 다시 영어로는 “person”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원래 “*persona*”의 뜻은 “a mask”(가면)이다. 로마의 연극에서 배우는 이러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역할을 연극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테르툴리아누스가 기본적으로는 유일신론적 사유 속에서 “one substance, three persons”라는 표현을 통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세 가지 구분되는 독특한 역할들을 한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 ② perichoresis

6세기부터 사용되어진 그리스어 “페리코레시스”는 영어로 “mutual interpenetration”으로 번역되어진다. 삼위일체의 세 위체들이 서로에게 상호 내재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즉 삼위일체란 일종의 존재의 공동체로서, 각각의 위체는 자신을 잃어버림이 없이 다른 위체들 속에 내재하게 된다는 기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존재의 관계성을 드러낸다.

### ③ appropriation

하나님은 단지 한 분으로 세 위체란 결국 세 가지 활동 정도라고 평가 절하하는 양태론의 이단에 맞서 교리사에서 “적합성”이란 개념을 발전시킨다. 곧 성부는 단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고, 성자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화 활동이라는 양태론에 맞서, 삼위일체론자들은 창조, 구원, 성화에 있어 세 위체들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활동한다고 주장한다. 단지 논리상으로 볼 때 창조를 성부의 역할에 보다 적합하고, 구원을 성자의 역할에 보다 적합하고, 성화를 성령의 역할에 보다 적절해서 그렇게 표현할 뿐이라는 논리이다.

## (3) 삼위일체사상의 태동기 움직임

## ① 2-3세기

대체로 2-3세기는 성자의 신성 문제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불명확하거나 유동적인 상태였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지혜”(wisdom)라는 말이 성자와 성령에 모두 혼용되기도 하였다. 구약성서의 예언이나 예수의 탄생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해되기도 하였지만, 또한 로고스(말씀)의 사역이라고 이해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레니우스(Irenaeus)가 “하나님의 두 손들”이라고 표현하였듯, 창조의 사역에 성자와 성령이 모두 관여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결국 성자와 성령의 역할분담에 대한 보다 분명한 구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레니우스와 오리게네스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레니우스는 “성령”을 “예언”的 역할에, “성자”를 “성육신”的 역할에, 그리고 “성부”를 “미래의 완성”的 \_\_\_\_\_에 각각 배치하였다(*Adv. haer.* 4.20.5). 이레니우스의 이러한 기능론적 삼위일체 구분과 달리, 오리게네스는 \_\_\_\_\_에 기초한 삼위일체 구분을 제시하였다.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성부는 “각각의 모든 사물들” 안에서 활동하고, 성자는 “합리적 피조물들” 안에서만 활동하고, 성령은 “성자들, 곧 교회” 안에서만 활동한다(*De princ.* 1.3.5-8).<sup>10)</sup>

요컨대, 초기의 2-3세기 신학자들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의 세계 내 활동의 방식 혹은 양태로 보는 경향성이 강했다. 하지만 기능론적 구분이든 영역론적 구분이든, 엄밀한 의미에서 삼위일체론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삼신론의 위험 곧 각 위체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들의 관계적 일치성을 약화시킬 위험성을 가졌다.

## ② 4세기 이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회의)

아리우스 이단(성자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_\_\_\_\_)에 대항하며, 또한 위에서 언급한 기능론적-영역론적 구분의 위험성(실제로 아리우스는 정통적 기독교를 ‘삼신론’(tritheism)이라 비판한다)에 대항하며, 아타나시우스는 기념비적인 공식으로 삼위들의 관계성을 확정짓는다: 성부는 성자 없이 성부가 될 수 없고, 성자는 성부 없이 성자가 될 수 없다 (*C. Arian.* 1.29). 다시 말해 성부나 성자라는 용어 자체가 영원한 관계성의 표현으로, 성자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아리우스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기독교 교회는 구약성서의 일부 표현들이 제시하는 천사들이나 신현(theophany)에 대한 보고들, 그리고 유대교의 한 분 하나님과 그의 다양한 세계 내 현현들의 사상에 비판적으로 대응하여야 했다. 그 핵심에는 ‘\_\_\_\_\_’이라는 구도에서 ‘\_\_\_\_\_’이라는 구도의 전환이 자리하였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조에서 성자와 성령의 온존한 신성을 확인한 것이 바로 이러한 구도의 전환을 의미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년)의 영문 번역문:

“We believe in one God, the Father, the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of all that is seen and unseen.  
And in one Lord, Jesus Christ,

10)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1), 270-271.

the Son of God, eternally begotten from the father, ~~only begotten, that is,~~  
~~from the substance of the father;~~  
God from God, Light from Light, true God from true God,  
begotten not made, one in Being with the Father.  
through whom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ings in heaven and things on~~  
~~earth:~~  
Who because of us men and because of our salvation came down from the  
heaven and became incarnat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was born of the Virgin Mary, becoming  
man.  
For our sake he was crucified under Pontius Pilate  
suffered and was burie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in fulfillment of the Scriptures,  
he ascended to the heavens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again in glor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And in the Holy Spirit. the Lord, the Giver of Life,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With the Father and the Son he is worshipped and glorified  
He has spoken through the Prophets.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We acknowledge one baptism for the forgiveness of sins.  
We look for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life of the world to come.  
But as for those who say, There was when He was not, and Before being  
born He was not, and that He came into existence out of nothing or who  
assert that the Son of God is of a different hypostasis or substance, or is  
subject to alteration or change — those the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anathematizes.”

판넨베르크의 평가: “One point here is of abiding significance. Christina statements about the Son and the Spirit take up questions which had already occupied Jewish thought concerning the essential transcendent reality of **the one God** and **the modes of his manifestation**. The Christian answer to these questions which was given with the Nicene and Constantinopolitan confession of the full deity of the Son and Spirit is to the effect that the forms of the presence and revelation of God in the world are essentially one with the transcendent God himself, so that God is to be thought of as both **transcendent** and also **immanent** in the world.”<sup>11)</sup>

---

11) Wol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1), 276-277.

#### (4) 사상사에 등장한 삼위일체론의 이단들

##### ① 양태론 (modalism)

“양태론”이란 독일의 교리사학자 아돌프 하르낙이 2세기 후반의 Noetus, Praxeas와 3세기의 Sabellius를 가리켜 부른 용어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핵심 관심은 ‘삼신론’(tritheism)으로의 타락의 위험에 맞서 하나님의 신성의 유일성을 보호하는데 있었다. 요컨대 진정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시대에 따라 다른 세 양태 혹은 양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한 분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양태론을 “군주론”(monarchianism)이라 불리게도 하였다. 또한 양태론 혹은 군주론의 논리를 엄격하게 확장시키면,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성부 하나님 자신이 된다. 이를 “성부수난설”(patrification)이라고도 불린다. 맥그래스는 하나님의 세 활동의 양태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The one God is revealed in the manner of creator and lawgiver. This aspect of God is referred to as ‘the Father.’
2. The same God is then revealed in the manner of savior,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This aspect of God is referred to as ‘the Son.’
3. The same God is then revealed in the manner of the one who sanctifies and gives eternal life. This aspect of God is referred to as ‘the Spirit.’”<sup>12)</sup>

##### ② 삼신론 (tritheism)

양태론이 한 분 하나님의 단일성과 신성을 보존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삼신론은 각각의 위체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마치 세 명의 인간이 각각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신성한 하나님의 세 위체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공공연히 하나님이 셋이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세 위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간접적으로 일종의 삼신론적 주장으로 전락할 항존적 위험성을 가졌다.

#### (5) 사상사에 등장한 삼위일체론의 정통들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쉽지 않은 질문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단일성’과 ‘삼위성’을 각각 보다 강조하는 입장이 이른바 정통적 기독교에서도 다시 발견된다. 삼위성을 보다 강조한 이들로 카파도키아 교부들, 그리고 단일성을 보다 강조한 이들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칼 바르트만을 살펴보도록 하자.

- ① 카파도키아 교부들: Basil the Great (330-379), Gregory of Nyssa (c.332-395), Gregory of Nazianzus (329-389)

##### 가) 삼위성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삼위성을 강조하였고, 같은 선상에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에서 성

12)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1997), 301.

령의 독립적 신성을 획득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 나) 성부의 우선성

단일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세 위체들의 독립성과 특히 성부의 우선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성부에게서 성자가 “태어나고”(begotten), 성부에게서 성령이 “발현되 기”(proceeds) 때문이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이 관계를 “the one person of the Father, from whom the Son is begotten and the Spirit proceeds”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그대로 반영된다.] 또한 그는 “the three have one nature (that is, God), the ground of their unity being the Father”라고도 한다.

#### 다) 삼신론의 위험?

맥그래스는 ‘한 본질, 세 위체’를 이들이 “한 보편적 신성, 세 구체적 예시”(a universal and its particulars)로 이해하였다고 해석한다. 그러한 근거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사용한 ‘한 인간의 보편성,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예를 듈다. 맥그래스는 이러한 논리는 결국 삼신론의 힌트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Gregory of Nyssa: “Peter, James and John are called three humans, even though they share **a single common humanity**. … So how do we compromise our belief, by saying on the one hand that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have a single godhead, while on the other hand denying that we are talking about three gods ?”<sup>13)</sup>

### ② 아우구스티누스

#### 가) 종속설의 거부

삼신론적 위험이 각각의 위체의 독립성과 성부의 우선성, 그리고 다른 두 위체의 종속성에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종속론”(subordinationism)의 위험을 단호히 거절한다. 종속론의 거부를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우선성과 심리적 삼위일체 모델이라는 두 방식을 사용하였다.

#### 나) 사랑의 관계로서의 삼위일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이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관계라고 본다. 다시 말해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사랑으로 묶는 끈 혹은 풀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의 종속적 위치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프리즘 자체가 군주론적 ‘종속’의 위험을 상당부분 피하는 것도 사실이다.

#### 다) 심리적 유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인간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삼위일체의 흔**

13)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1997), 303.

적”(*vestigia Trinitatis; traces of the Trinity*)을 찾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삼위일체 유비모델들이다:

- \* 마음-지식-사랑(*mens-notitia-amor*; mind-knowledge-love)
- \* 기억-이해-의지 (*memoria-intelligentia-voluntas*; memory-understanding-will)<sup>14)</sup>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유비를 일종의 교육적 산파술로서 이용한 것이지 어떤 한 요소가 성부, 성자, 혹은 성령에 완전히 일치한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 라) 양태론의 위험?

만일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지처럼 한 사람의 세 가지 마음의 기능이라는 이미지를 논리적 극단 까지 밀고 간다면, 그것이 고대에서 이단이라고 정죄 받은 “양태론”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 ③ 칼 바르트

##### 가) 계시의 삼위일체

바르트는 계시라는 하나의 화두로 삼위일체를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곧 성부는 계시의 조어(the revealing God), 성자는 계시의 목적어(the self-revelation of God), 성령은 계시의 술어(revealedness)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의 삼중성에 기초한 삼위일체론을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God reveals himself. He reveals himself through himself. He reveals himself.*”

바르트에 따르면, 신학과 성서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변증법으로 수줍게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비변증법적인 초월이 내재적 방식을 통한 사랑의 모순적 표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목하여야 한다.<sup>15)</sup> 세계의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십자가·부활을 통해 자연적이고 물리적이고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으로 모순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초월적 하나님을 성서는 증언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의 자연을 가지지 않으신다면, 만약 하나님의 그렇게 화학적으로 정제된 절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sup>16)</sup>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의 행동은 오직 자연과 정신이 결합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학은 거짓된 영성주의와 거짓된 리얼리즘, 범신론과 이신론의 위험을 모두 피해야 한다고 바르트는 본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인동형론에 기초해 인간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인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격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다.”<sup>17)</sup> 신학이 너무 많은 신인동형론을 사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제한적으로 신인동형론을 사용해서 문제인 것이다.

만약 한 인격의 존재(being of a person)가 행동 안의 존재(being in act)라고

14)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1997), 305-6.

15) Barth, *Church Dogmatics*, II.1, 265.

16) Barth, *Church Dogmatics*, II.1, 267.

17) Barth, *Church Dogmatics*, II.1, 272.

한다면, 그리고 만약 엄격하고 적절한 의미에서 행동 안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질 수 있는 호칭이라면, 인격의 존재라는 개념은 엄격하고 적절한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의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의식적이고 자기 의지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존재, 따라서 인격적 존재(personal being)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킨다.<sup>18)</sup>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경우처럼 독립된 개체로 따로 세 인격이 존재하여 나중에 사귐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항상 삼위일체의 내재적 사귐의 행동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에서 사용되는 “인격(persona)” 곧 “modus subsistentiae, manner of being”을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개체적 “(person)”으로 오해하는데 있어 매우 비판적이다.<sup>19)</sup> 신학은 인간학이라는 포이어바흐의 주장은 이러한 근대적 인간 이해에서 기초한 본말 전도이다. 신학이 인간학에 정초되는 투사체가 아니라, 인간학이 신학에 정초되는 영원한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의 인격성에서만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가 의미하는 것은 세 존재 양식 안에 있는 하나님(the being of God in the three modes)이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의 교리를 성찰하는데 있어 우리는 “인간”(person)이라는 개념을 이 주제의 서술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이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의미로 모든 고전적 신학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세 인간들(persons)이 존재하며, 따라서 삼중적인 자아(a threefold Ego) 혹은 삼중적인 주체(a threefold subject)의 의미 안에 세 인간적 특성들(personalities)이 존재한다고 기독교 교회는 결코 가르친 적이 없다. 이것은 존재의 방식(modus subsistentiae)으로서의 인격(persona)이라는 개념이 바로 피하고자 의도했던 삼신론(tritheism)이다.<sup>20)</sup>

다시 말해, 바르트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에서 ‘삼중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한 본질의 3가지 ‘양태들’이라는 단일성을 다시 강조하는 전통을 강화시킨다.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러한 계시가 드러난 대상 혹은 목적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계시된 상태라는 서술어로서의 성령은 무엇일까? 여기서 맥그레스의 설명이 도움이 된다.

“Imagine two individuals, walking outside Jerusalem on a spring day around the year AD 30. They see three men being crucified, and pause to watch. The first points to the central figure, and says, “There is a common criminal being executed.” The second, pointing to the same man, replies, “There is the Son of God dying for me.” To say that Jesus *is* the self-revelation of God will not do in

---

18) Barth, *Church Dogmatics*, II.1, 271.

19) Barth, *Church Dogmatics*, II.1, 288.

20) Barth, *Church Dogmatics*, II.1, 297.

itself; there must be some means by which Jesus is *recognized* as the self-revelation of God. And it is this recognition of revelation as revelation that constitutes the idea of *Offenbarsein* [revealedness].”<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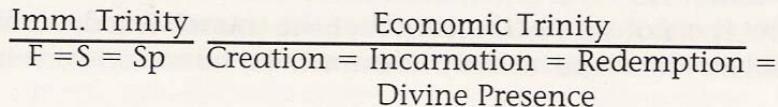
#### 나) 양태론의 위험?

결국 계시라는 하나의 활동의 세 양태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양태론의 위기에 바르트가 놓인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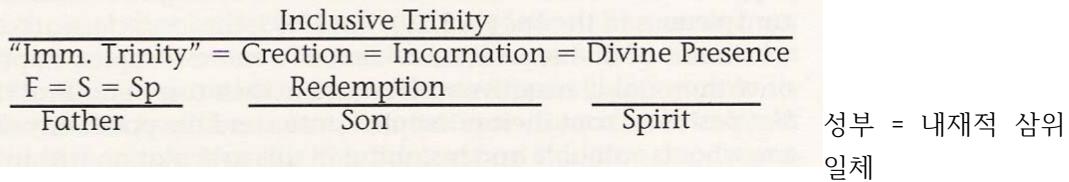
#### (6) 새로운 삼위일체의 시도?

## ① 헤겔

## I. Scheme 1. Immanent-Economic Classical Model



## II. Scheme 2. "Immanent"-Inclusive Hegelian Model



성자 = 자연세계

## 성령 = 정신세계

하나님 = 성부→성자→성령으로 발전하는 ‘전체 과정’?

Heidegger: 헤겔의 철학 = “onto-theo-ego-logy”, 곧 “존재-신-인간-학”

## ②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

[성부] = primordial God

[성자] = consequent God

[성령] = superjective God?

③ 칼 라너: 내재적 삼위일체 = 경제적 삼위일체

21)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1997), 308.

라너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이전의 ‘한 하나님-그의 여러 활동들’의 구도에서 ‘초월적 하나님-내재적 하나님’으로의 구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칼 라너의 수수께끼 같은 진술인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제적 삼위일체’이며, 그 반대로 참이라는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Rahner: “The basic thesis which establishes this connection between the treatises and presents the Trinity as a mystery of salvation (in its reality and not merely as a doctrine) might be formulated as follows: The “economic” Trinity is the “immanent” Trinity and the “immanent” Trinity is the “economic” Trinity.”<sup>22)</sup>

[McGrath: “The story is told of the American theologian who expressed his delight to a German colleague over the way in which Rahner’s German writings were becoming available in English. “It’s just great the way Rahner’s being translated into English.” His colleague laughed bitterly, and replied: “We’re still waiting for someone to translate him into German.””<sup>23)</sup>]

#### ④ 판넨베르크: 한 의식, 세 행동의 중심점

“If the trinitarian relations among Father, Son, and Spirit have the form of mutual self-distinction, they must be understood not merely as **different modes of being of one divine subject** but as **living realizations of separate centers of action**. Whether we must also view these centers of action as centers of consciousness depends on whether and in what sense we can apply the idea of consciousness, which derives from human experience, to the divine life. … [A] divine consciousness subsists in threefold mode …”<sup>24)</sup>

다시 *De Deo Uno*와 *De Deo Trino*. 여러분은?

추가 사상: 인간론(imago Dei)

\*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분: 흔적, 형상, 닮음

“According to Augustine, this drawing near through distance has three stages: trace (*vestigium*), image (*imago*), and resemblance (*similitudo*). In the ‘trace’ the trinitarian mystery of origin expresses itself only in an objective manner; in the ‘image’ this happens expressly in the structure of the subject, which through the form of its being as a spirit enters the relationship to the trinitarian spirit of its origin; in the ‘resemblance’ the archetype dwells in the copied image through sanctifying grace.”<sup>25)</sup>

22) Karl Rahner, *The Trinity*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70), 21-22.

23)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1997), 300.

24)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1), 319.

25) Hans Urs von Balthasar, *The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Volume 2: Studies in Theological Style: Clerical Style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4), 301.